

# 밸류업지수 ETF 상장 코앞인데… 수익률·참여율 모두 ‘저조’

오는 4일 ETF·ETN 상장 예정  
고려아연 제외 평균 마이너스 수익률  
안내공시 61건, 본 공시는 1.07%  
정은보 “ETF 출시로 동력 기대”

내달 밸류업지수를 기초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상장을 앞두고 있지만 주식시장에 긍정적 흐름을 주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장 기업들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공시’ 참여율, 밸류업 지수 상승률 등이 모두 제자리걸음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리아밸류업 지수는 출시 당일부터 이날까지 3.56% 감소했다. 출시 이후 점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 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오는 11월 4일 코리아밸류업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ETF 12종목과 상장지수증권(ETN) 1종목이 상장할 예정이지만 주식시장의 기대감은 저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밸류업지수에 실망한 투자자 이미지.

코리아밸류업 지수가 출시됐던 지난 9월 30일부터 현재까지 밸류업 공시 참여 기업 중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은 ‘고려아연’이다. 해당 기간 동안 고려아연은 45.05% 상승했다. 다만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 등의 이슈가 강력했던 만큼 밸류업 공시에 따른 기대감

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코리아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99개 종목(고려아연 제외)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평균 1.69% 주가가 하락했다. 사실상 고려아연을 제외한 밸류업 지수 포함 종목들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

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게다가 정부가 밸류업 공시를 시작한 지 약 5개월이 지났지만 이날까지 나온 밸류업 공시는 총 61건이다. 이는 전체 상장사 2606개사(코스피·코스닥) 중 2.34%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중 밸류업 안내공시가 아닌 본 공시에 참여한 기업을 추리면서 1.07%로 비율이 더욱 감소하게 된다. 지난 9월 밸류업 지수가 출시되고, 11월에는 밸류업 ETF·ETP 상장 등이 예정돼 있지만 기업들의 참여도는 여전히 낮은 모습이다.

이날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밸류업 펀드 조성 협약식 및 ETF 출시 간담회’를 열고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한 지 5개월여가 지났지만 전반적인 상장기업들의 참여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기업 밸류업 펀드 조성과 ETF 출시를 통해 밸류업 참여 기업에 대한 투자 분위기가 조성되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유인이 증가하고 밸류업 프로그램도 동력을 얻

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8월 거래소는 삼성전자, SK, LG, 포스코 등 10대 그룹 재무담당 임원을 소집해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당부하기도 했다. 증시 영향력이 높은 대형 상장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밸류업 공시 참여 확산에 힘을 더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계열사를 포함해 그룹 전체가 밸류업 공시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는 지난달 발표된 코리아밸류업 지수 100종목에는 포함됐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 계열 금융사들은 아직 주주가치제고 계획을 발표하지 않아 관련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며 “주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이벤트는 밸류업 공시이지만 시기는 미정”이라고 짚었다. 이제는 삼성 계열사들의 밸류업 공시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해외주식 투자 열풍… 증권사, MTS 경쟁력 강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증권사 27개사, 올해 상반기 공시  
외화증권 수탁 수수료 수익 52.6% ↑  
미래에셋증권, MTS 홈화면 개편

국내 주식 거래가 주춤한 가운데 해외 주식 투자 열풍이 지속되면서 국내 증권사들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강화에 나섰다. 특히 투자자들의 수요에 대응해 다양한 해외 투자 정보와 거래 편의 기능을 추가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3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 선호로 인해 국내 증권사 27개사가 공시한 올 상반기 외화 증권 수탁 수수료 수익은 5583

억원으로 전년 동기(3659억원) 대비 52.6% 급증했다.

외화 증권 수탁 수수료는 증권사가 해외주식 거래 등을 지원하는 대가로 받는 일종의 중개수익이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의 대부분은 국내 주식이며서 국내 주식의 거래 부진으로 줄어든 수익을 해외 주식의 높은 수수료율이 이를 상쇄할 수 있다”며 “예컨대 국내 거래대금이 20% 감소하고, 해외 거래대금이 40% 증가하면 브로커리지 수수료는 2.4% 줄어드는 것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MTS 사용 편

의성을 높이고, 해외 주식 거래에 특화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오늘부터 개편된 MTS 홈화면을 선보일 예정이다. 새로운 홈 화면은 ‘오늘 주식’, ‘인사이트’, ‘자산’ 등 세 가지 주요 섹션으로 구성된다. ‘오늘 주식’에서는 국내 주식은 물론 해외 주식도 볼 수 있으며 종목과 연관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미래에셋증권은 ‘글로벌 마켓’이라는 공간을 통해 해외주식 시장 정보를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7월 자사 MTS ‘한국투자’ 앱의 홈 화면을 전면 개편했다. 특히 해외주식 접근성을 높

이기 위해 별도의 홈 화면을 신설했다. MTS 접속 시간에 따라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국내 홈이, 이후부터는 해외 홈으로 전환된다. 배당락이 임박한 미국주식, 인기 있는 미국주식과 ETF 랭킹, 투자 대가의 포트폴리오 등 해외 투자 관련 콘텐츠도 홈 화면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중소형 증권사들도 MTS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내년 상반기까지 자사 대표 MTS인 ‘스마트엠(SmartM)’과 국내·해외 소수점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MTS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개편을 준비 중이다. 한화투자증권의 신규 MTS

는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화된 차별적 고객 경험, 특화된 해외투자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유안타증권은 이달 새로운 모바일 투자 솔루션 ‘뉴 티레이더M’을 오픈했다. 국내 및 해외 주식·선물옵션은 물론 금융상품 매매와 자산관리까지 하나의 앱으로 거래할 수 있게 했다.

해외로 눈을 돌리는 국내 투자자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증권사 간 거래 플랫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증시 이동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각사들이 해외주식 투자에 효과적이고 편리한 MTS 개편에 대거 투자중”이라며 “투자자들에게 효율적인 투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MTS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 ‘대외적 호재’ 바이오株, 목표주가 줄상향

美 금리인하·생물보안법 통과 영향  
삼성바이오로직스 ‘4兆 클럽’ 가능성

미국발 호재가 불려온대외적 요인으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선전이 예상되면서, 증권사들은 바이오 기업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다.

3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최근 ‘황제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바이오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높이는 추세다.

실제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상장종목 중 바이오 산업군 내 대표기업 10종목으로 구성된 ‘KRX 바이오 TOP 10 지수’의 성장세도 가팔랐다.

1년여 전인 지난해 11월 1일 기준 1588.05에 불과했던 지수는 이날 기준 2375.71을 기록했다. 이는 약 49.6% 상승한 수치다. 3개월 전과 비교해도 해당 지수는 8.81% 상승했다.

이는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생물보안법 통

과’라는 호재가 바이오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적으로 국내의 기준금리 인하되면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도 살아난다. 자금 유동성이 활발해지면서 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 조달도 원활해질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아울러 통과가 유력한 미국 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가 바이오경제 육성과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하원에서 306대 81로 통과되면서, 초당적 지지로 연내 통과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중 어떤 정권이 뽑혀도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려는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국내 바이오주 상승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다.

코스피에서 단 두 종목뿐인 ‘황제주’(주가 100만원 이상) 중 하나이자, ‘국내 바이오 대장주’로 꼽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는 이날 종가 기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100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올 3분기 누적 매출이 창사 이후 최초로 3조원을 넘어 서며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중 처음으로 연매출 ‘4조 클럽’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0월 중 10여곳의 증권사(하나·대신·KB·메리츠·LS·다올투자·유진투자·LS·BNK투자·미래에셋증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목표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증권가에서 제시한 목표가는 115만원부터 135만원 사이다. 현재 주가(105만9000원) 대비 최소 14.77%에서 최대 34.73%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한 것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NH투자證, 퇴직연금 서비스 이용수 403만회

MTS 통해 차별화된 솔루션 제공  
연금수령체험 등 오픈하며 이용 급증

NH투자증권의 모바일앱(MTS) 퇴직연금 서비스 누적 이용수가 400만회를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누구나 편리하게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MTS를 통해 통합연금자산, 연금준비진단, 연금 목표포지셔닝, 퇴직연금픽(PICK), 연금수령체험 등 차별화된 퇴직연금 자산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통합연금자산을 시작으로 연금준비진단과 퇴직연금픽(PICK)을 순차적으로 오픈해 NH투자증권은 지난 6월 연금수령체험, 9월 연금목표포지셔닝을 오픈하면서 이용수가 급증했다.

NH투자증권 측은 “이날 기준 서비스 누적 이용수는 403만회로 퇴직연금 실물이전일이 가까워지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서비스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면 매일 1만회 가량 조회된 셈으로 높은 관심을 입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수령체험 서비스’는 NH투자증권이 증권업계 최초로 제공하는 비대면 연금수령 체험서비스로 NH투자증권 연금계좌 뿐만 아니라 타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자산까지 포함해 연금자산 확인이 가능하다.

이를 대상으로 절세를 고려한 연금수령방법을 추천하고, 연금수령방법별 맞춤형 절세 포인트와 예상 세금, 세후 연금수령액까지 비교 가능하다.

NH투자증권은 퇴직연금 모바일 솔루션에 대한 인기가 퇴직연금 실물이전 수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퇴직연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품라인업도 확대했다.

은행 정기예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과 공모펀드 상품 라인업을 증권업 최대 수준으로 확보하였으며 실시간 투자 가능한 ETF 상품 라인업은 727개 수준이다. /허정윤 기자